



기획의도

범죄는 진화했고, 공조는 진보했다.
까칠법의학자, 영혈신참검사, 베테랑검사의
돌아온 리얼공조!
'검법남녀 시즌2'

1년이 지나 시즌2가 시작되는 시점의 은솔은, 검찰들의 은어로 일명 '1학년 검사!'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신참검사에서 한층 성장한 은솔과 한번 백범은 영원한 백범이다. 미워할 수 없는 괴짜 천재 법의관 백범의 특별한 공조. 검법남녀 시즌2가 다시 돌아왔다!

백범이 만난 최초의 '말 없는 시신. 흔적 없는 시신'이 바로, 시즌 1의 엔딩을 장식한 오만상 사건. 교통사고로 탄화된 시신의 대퇴골에서 오만상의 DNA가 검출되어, 오만상은 공식적으로 죽은 사람이 되었지만, 백범과 모두에게는 "진짜 오만상이 죽었을까?"에 대한 의문을 남긴다.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오만상 사건에 의혹이 풀리지 않는 백범... 홀로 오만상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고군분투 하는 가운데, 새로운 사건이 터진다!

작품소개

2019년 6월 3일부터 동해 7월 29일까지 방영된 MBC 월화 미니시리즈 2018년 여름 방영된 검법남녀가 'To be Continued'라는 자막과 함께 종영하고, 시즌2 제작 발표 이후 전작의 연출자, 작가, 배우들이 그대로 다시 뭉쳐 제작 된 MBC의 사실상 첫 시즌제 드라마다.

등장인물

백범 (정재영)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1년 차의 법의학관으로, 까칠한 성격의 소유자. 시즌 1의 부검 실력이 녹슬지 않고, 전체적으로 더 발전하여 절대 풀리지 않을 것 같던 미제 사건도 끈기로 풀어내고 마는 대단한 인물. 지난 시즌의 엔딩을 장식했던 '오만상 사건'에 의심을 품고 "진짜 오만상이 죽었을까?"에 대한 의문을 찾아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고 있다.

은솔 (정유미)

성장한 신참 검사이자 1년차 검사. 동부지검 형사부의 평검사이다. 지난 시즌보다 수사력이 많이 나아져서, 절대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사건들도 공조를 통해 기묘하게 잘 풀어낸다. 중반부터는 흑막들에 의해 현장용 검사로 좌천 아닌 좌천을 당하게 되지만, 최종회에서 그동안의 오명을 완전히 벗어내고 뛰어난 수사력을 보여준다. 이번 시즌에서는 백범한테 소설가 소리를 단 2번 들 었다는 것만 봐도 얼마나 성장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

도지한 (오만석)

별명이 도베르만일 정도의 수사에 대한 집요함 때문에 특수부 자리에서도 좌천당하며 형사부로 오게 된 사정이 있는 검사. 닥터 K와 흑막들의 커넥션을 제일 일찍 알고 열심히 파헤치다가 동료가 죽음을 당하고, 자신도 갈대철의 함정에 휘말려 죽을 위기에 처했으나 간신히 살아났다. 그리고 퇴원 이후 자신의 좌천 소식을 보자마자 예상했다는 듯이 사직서를 내고 검사직을 사퇴하였다. 그로부터 약 4개월 후, 양수동 앞에 나타나 법률 사무소를 차렸음을 알리게 된다.

장철 (노민우)

냉철하고 까칠하지만 실력이 출중하며, 극의 실마리를 쥐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통칭 닥터K로 각종 의학에 법의학까지 능통 한 천재 의사이자 살인마. 장철로서의 인격과 닥터K로서의 인격을 가진 해리성 인격장애를 갖고 있다. 백범이 말하길, 이런 인물 이 마음 먹고 사람을 죽이면 못 막는다 할 정도 어릴 때부터 지속적으로 엄마에게 학대를 당했고, 그것이 다중 인격 장애로 까지 나아가게 된 것으로, 9년 전 발생한 장철 모살인 사건의 담당 검사였던 갈대철이 강력한 용의자였던 아들 장철을 묵인하였고 그 대가로 장철은 '닥터K'가 되어 온갖 나쁜 짓을 하고 다니는 괴물이 되어버린 것이다. 갈대철과의 거래로 친부의 주소를 알아내 찾아가지만 얼마 안 가서 갈대철이 사주한 포수에게 당해 장철을 쫓던 도지한과 함께 절벽에서 추락하여 실종되고, 일단 사망 처리된다.

샬리 킴 (강승현)

전작의 '스텔라 황'의 후임 격으로 2회에서 처음 등장했으며, 걸 크러쉬가 가득한 매력과 시크함이 있다. 백범을 좋아하고 있으며, 사건 해결을 위해 백범과 붙어 다니는 은솔을 은근히 경계한다. 백범이랑 잘해 보려고 백범의 옆집에 살고 있는 은솔에게 집을 바꿔 살자고 제안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은솔이 거부했고, 현재는 은솔의 집에서 은솔과 룸메이트로 동거 중. 전전공공하던 다른 연구원들과는 달리 좋아하는 탓인지 백범의 지시는 항상 "Of Course!"나 "Roger"를 외치며 적극적으로 따른다.

줄거리

원벽주의에 괴팍한 성격을 가진 법의학자인 백범과 포토메모리 능력을 가졌지만 허당미 가득한 검사 은솔의 공조 수사를 다룬 드라마.

기획 손형석 극본 민지은, 조원기

연출 노도철, 한신선

제품구성

소비자가	88,000(vat포함)	장르	드라마
바코드	8809261 380201	출시일	2019년 9월
자막	영어	상품구성	6DISCS 전면 32회
지역코드	3		부가영상 117분